

기독교 상담과 건강한 성의 회복: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에서

하재성*

국문초록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인간의 성은 우선 상담자의 성경적 관점을 요청한다. 성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그 구체적인 함의는 계시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서의 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 안에서 경험하는 육체적 연합과 언약적 관계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나 인간의 삶에서 가장 왜곡을 일으키기 쉬운 것도 성이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성적 행위에 중독되기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성경적 관점마저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였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동성애적 탐욕으로 인한 범죄가 관영하였고 인간의 심각한 영적 황폐를 초래하였다. 권력으로서의 성적 쾌락 추구는 삶의 영혼의 위기를 자초한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신학의 왜곡된 성적 개념들을 다시 성경적 개념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성이 주는 개인과 관계에서의 온전성을 회복하였다. 즉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의 미덕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들은 내담자들로 하여금 성의 쾌락을 수용하고, 쾌락의 상호성, 배타성을 추구하되, 동성애적 유혹을 극복하게 도우며, 권력화 된 성의 피해자들을 공감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

주제어: 기독교상담, 성(sexuality), 타락, 쾌락, 동성애

• 논문 투고일: 2017년 10월 3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11월 1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5일

* 고려신학대학원

I. 여는 글

성에 대하여 진술하는 기독교 상담적 관점은 확실히 성에 관한 생물학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담론들에 비해 선명한 대조를 보인다. 왜냐하면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의 성이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게를 두고서 심리학을 어떻게 사용 혹은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펼친다.¹⁾ 특히 심리학적 지식을 비평적으로 사용하는 기독교상담에서 핵심교리인 죄와 악의 문제는 “상담현장에서 계속 직면할 문제”이다.²⁾

기독교상담이 성의 다양한 경험과 생리적 이해에 있어서는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을 참고하겠지만, 성의 의미와 목적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성경의 진리에 계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들은 기독교상담의 대전제인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성을 정의하고, 그 초월적이고 영적 의도에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불복종하며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부를 것에 먼저 동의해야 한다.³⁾

물론 성과 관련된 중독 혹은 반복적인 죄를 일으키는 ‘상처와 연약함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기독교상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으로 생긴 성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벗어난 행위 자체는 ‘죄’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1) 하재성, “목회상담 과연 가능한가?: 심리학의 사용에 대한 담론”, 『한국교회와 장신 신학의 정체성』, 박상진 편(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출판부, 2016), 430.

2) Mark McMinn, *Sin and Grace in Christian Counseling*, 전요섭 · 박성은 역, 『죄와 은혜의 기독교 상담학』(서울: CLC, 2011), 33.

3) Jay Adams의 가장 큰 공헌은 상담의 세계에 성경의 개념인 ‘죄’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물론 제2세대의 성경적 상담학자들은 내담자의 “행동을 살피고 왜라고 물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마음의 우상들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여 대답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사물들로부터 쾌락을 추구”기 때문이다. “성이라는 우상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자기 우상] 곧 죄악 되고 자신을 숭배하는 심연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다.” Heath Lambert,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Wheaton, IL.: Crossway, 2012), 151-152.

의미에서 기독교상담은 일반 심리학적 설명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영적 기준 즉 창조주를 기준으로 선과 죄가 나누어짐을 인정한다.

하지만 기독교상담은 성경과 전통적 개혁신학에 기초하여, 성이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한다. 성은 자녀생산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부부에게 특별한 즐거움과 본질적인 영적 연합의 경험을 준다.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순종할 때, 성은 그 자체가 거룩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을 경험하게 하고, 두 사람에게에는 위로와 기쁨과 치유의 경험을 허락한다.

이에 따라 기독교상담자는 치료의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성에 대한 불안제거, 혹은 관계와 친밀감의 기술 향상 이상으로, 가정과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회복을 본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부 상호간의 용납과 용서, 치유와 화해가 표면적으로 등장하지만, 궁극적으로 부부의 성에 대한 기독교상담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인간의 순종으로 마무리되어야 함을 서술할 것이다. 아울러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종류의 성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동반하여 치유되어야 하며, 기독교 상담자는 이들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깊은 인내와 공감적 안내, 건강한 신학적 조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죄로 타락한 성의 양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것이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살피고, 기독교상담자가 목표로 해야 할 건강한 기독교적 성 이미지를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인간의 타락에서 시작된 성적 왜곡의 실상을 우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찾아 언급하고, 이어서 중세 암흑기를 거치며-일부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오는-왜곡된 성 관념을 종교개혁자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개혁자 Martin Luther와 John Calvin의 신학을 통해 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필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첨예한 사회적, 도덕적 문제로

대두되는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적 문제들을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논의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인간의 타락과 왜곡된 성

1)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1:27).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 땅의 정복과 바다의 통치를 명령하셨다 (창1:28). 하나님은 태초에 일부일처에 의한 결혼의 제도를 지정하셨다 (창2:24). 물론 이 언급은 하와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준 아담의 언급이 아니다. 창세기 기록한 저자 모세가 ‘아담이 하와를 만나 감탄하며 이름을 지은 사건에 덧붙인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입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⁴⁾ 그러므로 안식일 제도와 더불어 1남1녀의 결혼을 통한 결합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과 명령에 의한 신적 제도이며,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특히 창세기 2:24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의 성격을 여러 면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선 그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부모에 대한 의무에 있어서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주에 있어서 지역상, 애정에 있어서 비교해 볼 때”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를 떠난 결과는 아내와의 연합이다. 그 연합이라는

4) Bible Hub, “Online Bible Study Suite,” in *Elicott’s Commentary; Benson Commentary;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Pulpit Commentary; Keil and Delitzsch Bible Commentary* etc., accessed on August 28, 2017, available at <http://biblehub.com/commentaries/genesis/2-24.htm>.

단어는 “단순히 육체의 결합, 이익 공동체, 애정의 상호성을 넘어 두 사람들[인격체]의 연합을 가리킨다.”⁵⁾ 이 표현이 말라기 2:15에서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 그리고 마태복음 19:5에서 예수님에 의해 반복되면서, 결혼의 불가분성과 일부다처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인간 연합에 대해 판단하며, 인류 시초로부터 시작된 결혼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기독교 윤리학자 Dennis Hollinger는 “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매우 구체적 목적을 가진 선한 선물이며, 그 목적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 온전한 성취를 이룬다”고 하였다.⁶⁾ 때로 성경에는 성에 관한 규범이나 규칙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한 결혼과 연합을 지정한 위의 말씀이야말로 성에 관한 기독교상담의 선명한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또한 성적인 특성과 고유한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는 결코 타락의 결과가 아니다. 아울러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각하고, 결혼의 질서 안에서 성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로부터 비롯된 ‘거룩한’ 일이다. 인간의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의도하셨고, 그 의도와 목적을 따라 친밀감을 느끼거나 성적 연합을 이루고, 거기에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선택하고 거룩한 일이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성을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거룩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하신다.

이에 덧붙여 인간의 성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는 근거는 결혼의 언약성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연합이나 즐거움을 의미하는 이상으로 “결혼의 언약적 관계성에 본래적으로 연결되

5) Bible Hub, “Online Bible Study Suite,” in *Pulpit Commentary*, accessed on August 28, 2017, available at <http://biblehub.com/commentaries/genesis/2-24.htm>.

6) Dennis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Christian Ethics and the Moral Lif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9), 13.

어 있다.”⁷⁾ 윤리학자 Lewis Smedes의 지적과 같이 “성의 육체적 측면은 내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의 표지이다.” 그것은 곧 부부의 성적 경험이 친밀감의 최고의 절정이라는 뜻이다. 육체적 오르가즘을 통해 경험하는 최대의 친밀성과 연합성은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예민한 형태의 “신뢰 경험”이다.⁸⁾

그러므로 성에 관한 성경의 규범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다.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의 윤리학자 Daniel Heimbach은 성의 윤리적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성과] 연관되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선택 밖에는 없다: 순종하라, 아니면 그 [불순종의] 결과를 대면하라”⁹⁾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어떤 상황적 변화나 인간관계의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성에 관한 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적 선물과 악한 불순종의 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내담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들의 행동과 표현을 관찰하고, 공감하며, 2세대 성경신학자들처럼 ‘왜’ 라는 질문에 대해 심리역동적 관찰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아래 있음을 알고, 성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도록 상담의 깊은 방향을 세워야 한다.

2) 인간의 타락과 성의식 왜곡 1: 오염된 탐욕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신학자 Augustine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¹⁰⁾고 하였다. 그리고 죄와 악은 “의지의 진정

7)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00.

8) Lewis Smedes, *Sex for Christians: The Limits and Liberties of Sexual Living*, rev. ed.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112.

9) Daniel Heimbach, *True Sexual Morality: Recovering Biblical Standards for a Culture in Crisis* (Wheaton, IL.: Crossway, 2004), 134.

10) St. Augustine, *On Free Choice of Will*, trans. A. S. Benjamin & L. H. Hackstaff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4), xxv.

한 부르심으로부터 떠나버린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악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악을 조장한 원인은 바로 탐욕이었다. Augustine은 탐욕이 “간음에 있어서 악의 요소”이며, 비록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는 기회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행동을 한 사람보다 죄가 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¹¹⁾

따라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성적인 타락과 음란, 성의 약탈로 나타나는 권력적 탐욕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긍정적인 성을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거나 묘사하는 면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원래 인간의 성을 나쁘다고 한 것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초기 영지주의에서 비롯된 헬라적 이원론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악한데, 성은 곧 육체적 행위라는 것에서 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목회상담 사전에 묘사하듯, “성은 창조주의 선한 선물이다. 비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으나, 그것은 여전히 [참된] 교제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여겨져야 한다.”¹²⁾ 그러나 계시 역사의 초기인 창세기 19장에서부터 이미 인간의 심각한 죄성으로 말미암은 성의

11) St. Augustine, *On Free Choice of Will*, 8. 물론 인간의 원죄가 인간의 성적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St. Augustine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인간의 몸 안에 불순종의 요소를 심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적 탐욕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이다 (<http://www.jknirp.com/aug3.htm>). 그러나 인간의 원죄가 성적 영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간이 자기 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의 자율성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이의가 없다.

12) Rodney Hunter,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TN.: Abingdon, 1991), 1155.

왜곡은 나타났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창 18:20)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타락한 인간의 눈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그 성을 멸하러 온 천사들까지 그들이 성적으로 “상관하기”를 원했다 (창19:5).

이 낯선 천사들을 성적 대상의 인간으로 착각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삼시간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고”(창19:4) “문을 부수려고 하였다”(창19:9).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성애적 욕구와 표현에 대한 수치심을 알지 못하였고, 서로 균중을 이루어 자신들의 성적 탐욕을 노골화하며 서로의 죄악을 묵인, 강화하였다. 타락으로 왜곡된 인간의 성적 탐욕이 죄에 대한 수치 감정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의 경계선마저 상실하게 만든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 안에서, 그것도 “그 온전한 의미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성을 것처럼 노골적이고 탐욕스럽게 요구하는 것은 선한 창조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철저하게 벗어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소돔 사람들의 “상관하리라”는 말의 뜻을 손님과 강제로 인사하려고 하는 무례함(inhospitality)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Derrick S. Bailey¹³⁾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신학적 논리를 바꾸어 독자들을 오도한다. 하지만 룯의 잘못된 대답, 즉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창19:8)라는 말에서 베일리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이 요구한 “상관”은 단순히 낯선 사람과 인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야다’(즉 ‘알다’)이며, 그것이 곧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무서운 심판의 단면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

13) Derrick S. Bailey,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London: Longmans, Green and Col, 1955)

그렇다고 해서 롯의 태도가 옳은 것은 아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고대 도시들을 전전했던 롯은(창13:12)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큰 죄인임을 알면서도(창13:13) 짐짓 그들과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미 한 차례 포로로 잡혀간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이 구조하였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여전히 그 도시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폭도들이 천사들을 요구할 때, 어이없게도 처녀로 자란 딸들을 폭력과 잔인성에 내주겠다고 말한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들이 고스란히 재현된 것이 사사기 19장의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하던 기브아에서 발생하였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나그네와 “관계하려고” 하다가 (삿19:22), 결국 그 나그네의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죽게 한 까닭에 이스라엘 지파 간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전체가 거의 몰살당할 뻔한 사건이었다. 탐욕스런 불량배들에게 딸과 첩을 내주겠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도 등장 한다(삿19:24).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딸이나 첩을 대신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도덕한 시대적 분별력의 한계였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여 소알을 거쳐 산지에 거한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행한 일과도 일맥상통한다. 롯은 신앙의 근원지를 찾아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는 대신,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산지를 찾아 두 딸들과 살아가기 시작한다. 자신들의 미래와 자녀들을 염려했던 딸들은 엉뚱하게도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후손을 이어갈 전략을 세우고 실행한다(창19:30-38). 신약성경에서 이런 롯을 가리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인’이었으며,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고(벰후2:7-8) 말한다. 하지만 ‘의인’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음만큼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 준 비도덕적인 의식과 행동은 소돔과 고모라의 왜곡된 성적 습관들에 그대로 오염된 그 가족들의 사고방식을 대변해준다.

3) 인간의 타락과 성의식 왜곡 2: 권력 추구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혹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을 얻으려 한다.”¹⁴⁾ 비록 그것이 외형상 성인 당사자 간의 상호동의를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복잡한 관계의 역동,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약탈하는 내면적 불균형의 역동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 왕과 밧세바 사건이다. 다윗은 자신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을 보고,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기까지”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았다 (삼하11:2-4). 그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왕의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다.

이후 밧세바의 동침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그 사실은 은폐하기 위해 전장에 나가있던 남편 우리아를 불렀고, 그가 아내와 잠자리를 거부하였을 때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계획을 꾸며 살인을 저지른다. 하나님은 주신 십계명의 7계명과 10계명을 어긴 후 그것을 감추기 위해 6계명을 저지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그 사실은 왕실의 비밀로 감추어졌고, 이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삼하12:1), 밧세바가 첫 아이를 낳기까지 (삼하12:15) 거의 10 개월 동안 다윗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왕으로서 일상생활을 해 갈 수 있었다.

밧세바의 거절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호동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지우셨다. 우리아를 칼로 죽인 것은 암몬 자손의 칼이었지만 그것은 “다윗이 죽인 것”이었다. 다윗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삼하12:9). 왕이었던 다윗의 행위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였으며 (삼하12:9), 그것은

14) Harry Schaumburg, *False Intimacy*, 윤종석 역, 『거짓된 친밀감』 (서울: 두란노, 2012), 60.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긴” 행위 (삼하12:10)였다.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국의 왕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던 다윗은, 작은 권력의 악용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권력추구로서의 성의식의 왜곡은 목회현장이나 기독교상담에서도 특별한 제재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성중독 분야의 전문상담가 Harry Schaumburg의 상담사례에 등장하는 Sam이라는 목회자의 경우가 그렇다. Sam은 부부갈등을 겪고 있던 한 여성을 상담한 목회자로서 경청을 잘하였고, 따뜻한 관심과 격려의 말을 해 주었다. 남편에게 듣지 못한 따뜻함과 자상함을 경험한 그녀가 샘에게 포옹을 요구하였고, Sam이 그에 순응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엉뚱하게 발전하기 시작되었다. 결국 그녀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목회직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Sam은 심지어 자신의 “치자식을 버릴 것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자신의 신학까지 고칠 것을 심각하게 고려중이었다.”¹⁵⁾

목회자인 Sam 자신의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을 포함한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판단력의 왜곡이었다. 하지만 Schaumburg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불륜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였던 자신이 그녀의 “약점과 필요를, 그리고 포옹과 사랑과 응원을 받고 싶은 그녀의 갈망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였다. 그의 그런 행동은 “더 이상 그녀를 돕는 게 아니라 [목회와 상담이라는 이름으로-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그녀를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⁶⁾

목회신학자 Donald Capps는 이를 가리켜 “목회적 권력의 모순”(the paradox of pastoral power)이라 명명하였다.¹⁷⁾ 목회자가 자기중심적 방

15) Schaumburg, 『거짓된 친밀감』, 61.

16) Schaumburg, 『거짓된 친밀감』, 61.

17) Donald Capps, “Sex in the Parish: Social Scientific Explanations for Why It Occurs,” *Journal of Pastoral Care* 47, no. 4(1993): 356-357.

식으로 영혼들을 돌볼 때 부정적인 영향력은 가중되고, 상처 입은 평신도를 “더욱 의존적이고 병든 영혼”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¹⁸⁾ 왜곡된 성의식은 주어진 권한으로 자기 자신만을 섬기면서도 그것을 타인을 위한 돌봄 내지는 상호적인 사랑이라 착각하게 만들며, 양자 모두의 삶을 궁극적으로 파괴해간다.

2. 종교개혁과 전인적 성의 회복

1) 결혼과 성의 기쁨: Martin Luther

Luther가 이끌었던 종교개혁은 이신칭의를 통한 교리의 개혁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연적 본성의 회복이었다. 우선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목양활동”이었다.¹⁹⁾ 그리스도의 임재는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며, 믿음의 회복은 믿는 자들을 해방시켜 준다. 그 관점에서 그의 신학의 대상과 목적은 사람에 대한 온전한 돌봄의 회복이었다.

Luther는 자신이 결혼하기 3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초하여 “결혼에 관하여”를 저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은 강요행위가 아니라, 기쁨과 보존의 매개체”였다.²⁰⁾ 이 결혼은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허락된 것이기에 Luther는 결혼식과 혼인관계를 가리켜 ‘하나의 세상적 업무’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결혼이 세상적 죄악이나 인간의 타락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 자체가 “영원한 은총의 선물을 수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²¹⁾ 그러므로 그

18) 하재성, “목회자의 성적 위기와 극복을 위한 자원”,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 (2013): 277

19) Hans-Martin Barth,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정병식·홍지훈 역, 『마르틴 루터의 신학: 비평적 평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50.

20) Barth, 『마르틴 루터의 신학』, 591.

21) Barth, 『마르틴 루터의 신학』, 590.

에게서 결혼은 성례전이 아니며, 결혼예식은 예배당 입구나 건물 밖에서 이루어졌다. 아울러 Luther는 남편의 불능으로 육구의 만족이 어려운 경우, 남편의 동의와 허락 아래 일정한 방도를 추구할 수 있음을 허락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하는 부부관계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Luther에게 있어서 결혼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시고,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사역하시는 최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²²⁾ 비록 결혼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불을 빨고 악취를 맡아야 하는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남자와 여자가 각자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가치 있는 정금이나 보석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장식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²³⁾

여기에서 Luther는 성이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쾌락 경험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함께 지는 전체적 맥락임을 전제하고 있다. 피곤하고 지저분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저귀를 빨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웃으시고 모든 천사와 피조물과 더불어 즐거워하시는” 일인데, 그 이유는 “그가 이것을 신앙 안에서 하기 때문이”라고 Luther는 말한다.²⁴⁾ 사탄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하도록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미 그 가장이 “복되고, 거룩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²⁵⁾ 그리고 아내가 “음식과 음료를 공급하고 청소하고 씻기며 자녀들을 돌보는 여인은 그녀가 복되고 거룩

22) Barth, 『마르틴 루터의 신학』, 593.

23) Barth, 『마르틴 루터의 신학』, 592.

24) Barth, 『마르틴 루터의 신학』, 593.

25) Barth, 『마르틴 루터의 신학』, 593.

한 상태에 있는지 물을 필요조차 없다”고 하였다.²⁶⁾

그와 같은 관점에서 Luther는 배타적이며 영적인 성격의 성에 대해 말한다. 비록 세상에서 자신의 아내와 비교하여 성적으로 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직접 선물로 주셨고 내 팔에 안겨 주”신 아내만큼 칭찬할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교황이 여자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꺼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신다. “창조주는 부부와 그들의 동거 그리고 성을 통하여 다스리신다.”²⁷⁾ 성은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마치 불과 짚을 함께 두면 불붙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 욕망을 억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 자녀를 허락하시고,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통치가 이루어진다.

2) 기쁨의 회복: John Calvin

John Calvin의 신학은 성경에 근거하여 지나친 엄격함과 방만의 오류 사이의 “지상의 유익에 대한 정당한 사용”을 지시한다.²⁸⁾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기쁨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 천상의 나라를 향해 서둘러 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 그것이 “신체적 유익들”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탐욕과 통제되지 않는 과잉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잘못되지 않고 “창조자 자신이 만드시고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사용될 때” 그것은 선한 것이다. 거기에는 음식의 맛과 즐거움, “옷의 미와 정갈함,” 과일의 “외적 아름다움과 향의

26) Weimar Edition of Luther's Works (WA) 52, 112.8-10; 19-24(1544); Barth, 『마르틴 루터의 신학』, 593-594에서 재인용.

27) Barth, 『마르틴 루터의 신학』, 591.

2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III.10.1, 719.

즐거움,” 우리 눈에 와 닿는 꽃의 “위대한 아름다움과 코끝을 타고 드는 달콤한 향기”를 포함한다.²⁹⁾

맹목적 금욕과 다른 차원에서 Calvin은 이성에 대한 인간의 관점과 감각을 재정의한다. 성에는 쾌락이 따른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의 성을 창조하실 때 그 행위에 따른 즐거움을 느끼게 하심으로써 장성한 인간과 동물이 성적 행위에 이끌리게 하셨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였던 Calvin 자신도 인간의 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다.³⁰⁾

Luther 와 Calvin의 공통점은 성과 결혼을 창조자가 주신 자연의 미덕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연의 미덕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중세기의 수도원주의자들처럼 억제하거나 없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Calvin은 독신을 거룩하게 여기며 성을 죄악시하던 이전 시대의 신학적 산물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성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정죄하였다.³¹⁾ 그에게 있어서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 선물을 받은 인간은 그 소유를 인식하고,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여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성적인 본성을 배척한 결과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은 야만적인 동물의 행동들을 해 왔으며, 그것은 신적으로 부여된 본성을 배척한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Calvin에 따르면 인간의 “성적 생식 행위가 신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³²⁾ 물론 성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의 형태로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자 Calvin은

29) Calvin, *Institutes*, II.10.1, 720.

30) 하재성, “목회자 Calvin의 신학: 그 실천적 인간상”,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53권 (2010): 155.

31) Calvin, *Institutes*, IV. 13. 3.

32) William Bousma, *Calvin*, 이양호 · 박종숙 공역, 『칼빈』 (서울: 나단출판사, 1991), 313.

육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 거부감은커녕 오히려 암시적으로 “성적 쾌락에 대한 감사”를 주저하지 않았다.³³⁾

합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 두 남녀가 서로의 외모나 몸매 때문에 이끌리는 과정 자체도 Calvin은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서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애정형성의 과정 자체가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것이며, 그것이 상호존중으로, 결혼의 심오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어린 소녀와 중년남성의 결합과 같은 부자연스런 결합이나, 어린 소녀를 강제로 수녀원에 보내어 평생 독신으로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딸을 결혼하게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죄하였다.³⁴⁾

성에 관한 한, 생리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신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선물들을 인위적으로 억압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더 부자연스러운 결과들을 낳게 만든다. 하나님은 인간의 즐거움을 허락하셨고, 거기에서 불필요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당시 스토아 철학의 지배를 받아 인간의 즐거움을 없애버린 철학은 Calvin에 따르면, “사람의 감각을 박탈”하는 것이며, 그것은 “비인간적이다.”³⁵⁾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관한 한, Calvin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격려하는 방편으로서 즐거움을 피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섭리론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³⁶⁾ “육체적 필요를 희생함으로써 자기 의와 영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모든 스킨라적 노력들을 Calvin은 반대하였다.”³⁷⁾ 하나님은 다른 혼한 금속이나 돌들을 향해 느끼는 것과 다른 매력을 금은

33) Bousma, 『칼빈』, 313.

34) 하재성, “목회자 Calvin의 신학”, 157.

35)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132.

36) 하재성, “목회자 Calvin의 신학”, 149.

37) 하재성, “목회자 Calvin의 신학”, 152.

과 상아와 대리석에 대해 주셨다.³⁸⁾

같은 맥락에서 부부 안에서 누리는 성적 즐거움은 저항할 것이거나 양심의 괴로움을 느낄 일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미워하는 신성모독이 된다. 다만 “우리는 매우 성실하게 육체적 탐욕을 저항해야만” 무절제한 탐욕에 관하여 경고를 한다.³⁹⁾ 그러나 Calvin은 “자연과 이성이라는 상식적 판단의 기준”에서 남녀의 성적 쾌락의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⁴⁰⁾

3. 기독교상담과 성

1) 쾌락의 수용 vs. 이원론

Luther와 Calvin이 회복시킨 쾌락으로서의 성의 수용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과 육을 구별하고 육을 악하고 오염된 것이라 여기는, 기독교 안에서 매우 오래된 헬라적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이다. 일찍이 교부 Tertullian은 “육체는 지상의 물질이며, 영은 천상의 [물질]”이라 주장하였고, 그와 같은 사상은 오랜 세월, 기독교의 육체 혐오 사상을 불러 일으켰다.⁴¹⁾ 그 결과 육체와 그 필요는 경건과 묵상을 방해하는 기독교의 ‘적’이 되었고, 인간의 성은 인간 존재로부터 괴리되었다.

그 결과 신학자 Augustine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강렬한 성적욕구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인지하였다.⁴²⁾

38) Calvin, *Institutes*, IV. 13. 2. 721.

39) Calvin, *Institutes*, IV. 13. 3. 721.

40) 하재성, “목회자 Calvin의 신학,” 157.

41) Tertullian, *The Sacred Writings of Tertullian*, vol. 2, trans. Peter Holmes & Sydney Thevall (North Charleston, SC.: Createspace, 2012), 340.

42) 하재성, “인간의 성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18권(2012): 298.

Augustine에게 있어서 청소년기의 강력한 성적욕구는 의지와 분리되어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인간의 보다 고상한 가치들 즉 “자녀의 양육, 헌신, 사랑과 같은 보다 높은 가치”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⁴³⁾ 하지만 선입견과는 다르게 Augustine은 타락 전에 있었던 생육과 번성의 명령이 부부의 성적 연합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며 긍정하였다. 다만 성욕에 대한 그 자신의 존재론적 거부감 때문에 쾌락의 긍정성 보다는 중독성과 무절제에 더 큰 두려움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부의 성관계도 절제(self-control)의 관점에서 자녀를 낳기 위한 목적 이외의 성행위를 ‘과잉(excess)’의 죄라 지칭하며 제한적으로 수용하였다.

Thomas Aquinas 역시 성에 관한 자연법적 해석과 설명을 제안한다. 그도 역시 성행위 자체는 죄라 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자녀 번성의 목적 외에는 사치나 죄라고 말한다. 오히려 마리아처럼 처녀성을 지키는 것이 금욕적이며 더 숭고하다는 것이다. 자연법을 거스르는 쾌락의 탐닉은 동물적으로 “이성을 해체”시키므로, 인간을 원죄의 사슬에 결박시키는 육체의 성행위를 이성으로 통제해야만 한다. 이 맥락에서 음란이 악하고 나쁜 이유는 우선 “태어날 아이의 복지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며, 육체보다 중요한 “이성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⁴⁴⁾ 탐욕과 쾌락에 이끌린 성적 행위는 곧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된다.⁴⁵⁾

합법적인 성 행위에서 오는 쾌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다닐 때 (창2:25)” 이미 경험했던 즐거움이다.⁴⁶⁾ 그리고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즐거움을 가리키고 있다.”⁴⁷⁾ 만일 사도바울의 가

43) 하재성, “인간의 성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299.

44) 하재성, “인간의 성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303.

45)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이기적인 성욕인 정욕을 가리켜 ‘잔인한 죄’라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의 육체와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원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서울: IVP, 2012), 185.

46)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53.

47)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53.

르침과 같이 성적 쾌락에 대한 “절제 못함”이 결혼의 중요한 요소라면 (고전7:5), 그것은 결혼 안에 성적 열망과 쾌락이 함께 표현되고 수용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결혼관계 안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분방”하여 별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쾌락의 추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다양한 세상적 방식으로 “사탄이...시험하”게 하는 (고전7:5) 이유가 되기도 한다.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순간적이고 반복적인 부부의 성적 쾌락은 영원한 영생에서 경험될 관계적 연합에서 오는 쾌락을 가리키는 은유적 연결 즉 메타포(metaphor)이다.⁴⁸⁾ 그것은 아가서에 기록된 남녀의 성적 느낌과 즐거움과 사랑을 시적으로 묘사한 데서 명시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를 가리키는 앞(아다)의 수단이며 절정이다. 성의 쾌락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가 스스로 성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다루어야 한다.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적이고 유연한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스스로 지나치게 개방적인 상담자가 됨으로써 성적 역전의 성찰을⁴⁹⁾ 지나쳐버리거나, 과도하게 도덕주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성에 관한 성경과 신학의 풍성한 의미들을 화석화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2) 쾌락의 상호성 vs. 이기심

성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상호간 즐거움을 주고받는” 것이다.⁵⁰⁾ 하나님은 성을 통해 부부가 서로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배려하도록 의도하

48) 신원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200.

49) 상담자나 목회자의 역전이적 경험과 위험, 그리고 그것을 성찰할 수 있는 자원에 관해서는 하재성, “목회와 상담에서 나타나는 역전이 감정과 기독교적 영성”,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11권(2008): 267-293을 참조하라.

50)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53.

셨다. 고린도전서 7:4에서 바울이 지적하듯,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것은 곧 결혼생활에서의 임무는 부부가 “상대방의 위로, 복지, 행복을 자기 자신들의 것보다 우선해야 하며,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상대를] 실족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⁵¹⁾

인간의 성에서 상호성을 제거하면 그것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성행위가 된다. 오늘날 만연한 음란물과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다양한 매체들은 심지어 결혼한 부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 부부가 각각 자기중심적인 쾌락에만 몰입하도록 과장된 환상을 일으킨다. 현실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적 쾌락을 만족하도록 돕는 도구들이 만연하여 쾌락의 상호적 호혜성은 빛을 잃고 있다.

상호 배려, 공유된 쾌락이 상실된 부부의 성은 건강하지 못한 양상을 보여준다. 음란물을 보며 스스로 자극하여 혼자만의 성적 만족에 도취하는 것, 정서적 교감이 생략된 성폭력이나 부부 강간, 상호성이 제거된 일방적 성관계 등 부부의 성이 배려 없는 이기적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부부의 성이 ‘앓’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면⁵²⁾ 그것은 성행위 속에 “서로”의 의미와 “감정적 친근함”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성적 경험은 서로에 대한 앓의 절정이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려는 부부의 앓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성매매나 성희롱, 혹은 성폭력 등은 그런 인격적이고 합법적인 앓의 내용과 형식의 절

51) Bible Hub, “Online Bible Study Suite,” in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1Cor.7:4, accessed on August 28, 2017, available at http://biblehub.com/commentaries/1_corinthians/7-4.htm.

52) Eugene Peterson, *Five Smooth Stones for Pastoral Work* (Grand Rapids, MI.: Eerdmans, 1992). 이 책에서 Peterson은 성이 알려지지 않은 신비를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앓으로서의 성교를 이야기한다.

차를 생략하고, 쾌락이라는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비인간적, 비신학적, 비인격적이고 사단적인 죄악의 통로이다.⁵³⁾

부부의 성적 경험에서 서로의 쾌락을 배려하는 것은 “윤리적 책임”이다.⁵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쾌락의 상호성을 위해 배려하고 기다릴 때, 역설적이게도 서로가 누리는 성적 만족과 쾌락은 더 자주, 또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윤리학자 Hollinger는 “성적 쾌락에는 컨텍스트가 존재한다”고 말한다.⁵⁵⁾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 상대방의 마음 및 신체의 조건을 알고 조심성 있게 배려할 때 더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쾌락에 대한 절제와 기다림, 배려를 잘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가톨릭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집단에 비해 부부 사이에 더 자주 만족스런 성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자주 성적 쾌락의 절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⁵⁶⁾

자금의 대중문화는 성의 쾌락의 극대화, 시각적 자극의 최대화를 추구하면서, 정작 성적 경험에 있어서 부부의 상호 경험으로서의 합법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제거하고 있다. 거기에는 건강한 안심도, 서로에게 만족스런 쾌락도 존재하기 힘들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부부관계가 추구하는 목표는 성 그 이상이다: “[성은] 관계에 관한 것이다.”⁵⁷⁾

인격적인 상호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서로의 관계를 세우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 특히 안식일은 “성화된 시간”으로서, “생산-지향적 활동의

53) 하재성, “인간의 성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314.

54)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54.

55)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54.

56) Edward Laumann et al.,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Sexual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117;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54에서 재인용.

57)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55.

황포에 시달리는 남성과 여성들을 [관계-지향성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⁵⁸⁾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성격을 갖는다면, 안식과 쉼은 그 창조주의 전우주적 통치를 기억하고 그 백성들은 생산적 활동에서 벗어나,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 기다림과 배려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 가운데 부부 상호간의 성적 배려는 하나님의 통치와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최대화하는 안식과 믿음의 행위이다. 상호 배려하는 성적 관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부부는 거기에서 “자신에게 헌신한 배우자라는 확신, 자신들의 결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라는 신적 부르심, [그리고] 사랑이란 우리의 매력이나 성적 매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경험하게 된다.⁵⁹⁾ 부부의 상호성과 관계적 안정감을 해치는 모든 종류의 성적 행위와 유혹은 비윤리적이다. 이에 기독교 상담자는 부부의 성적 친밀감과 상호성을 해치는 다양한 관계적 장애물들을 탐색하여 제거해 가도록 도와야 한다. 서로에 대한 신중한 배려와 인내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을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쾌락의 배타성 vs. 외도

성의 쾌락 경험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 때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적 쾌락에 대한 규칙과 규제들이다. 왜냐하면 결혼을 벗어난 성적 표현들의 대부분은 성매매와 같은 인간 성의 사물화, 인간의 대상화 및 수단화, 일방적 쾌락의 경험과 같은 비인격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성적 표현을 두 사람의 평생의 헌신인 결혼 제도 안에 허락해 두셨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결혼의

58) Hunter, *DPCC*, 1080.

59) Marva Dawn, *Sexual Character: Beyond Technique to Intimac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3), 26;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55 에서 재인용.

60) 신원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185.

두 가지 목적이 자녀생산(창1:28)과 동반자로서의 생애(창2:18)이기 때문이다.

결혼 제도가 “역사적으로...성교를 규제해 왔으며, 그 규칙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맹렬하게 도전을 받았다.”⁶¹⁾ 하지만 성경은 매우 직접적으로 결혼의 신실성과 성관계의 배타성을 요구하고 있다 (출20:14; 잠 6:32; 마5:27-28). 그 규칙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적 성격인 거룩함과 배치되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될 수도 있다 (고전6:9-10; 히12:14; 계21:8). 이것은 성경적 명령이며 동시에 도덕적 덕목이다.

그리스도인인 부부의 성에 있어서는 “경건(거룩함)이 지배적인 원리”⁶²⁾가 된다. 따라서 성적인 쾌락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결혼의 언약과 책임 아래 자녀 양육과 상호존중을 깊어져야 하는 배타적인 기준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일부일처를 말씀하셨고, 두 사람의 성적 연합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고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룩함’의 영역에 포함시키셨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으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에 성적 쾌락의 비밀성과 배타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성의 관계적 거룩성은 “인격적, 배타적, 친밀성의, 풍성한, 이타적인, 복잡한,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⁶³⁾

규범적 배타성은 성에 대한 소극적 두려움을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목회자 및 기독교 상담자를 포함한 다수의 남성들은 부부의 배타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61) Hunter, *DPCC*, 676.

62) John Murray, *Principles of Conduct: Aspects of Biblical Ethics* (Grand Rapids, MI.: Eerdmans, 1964), 46-47.

63)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31.

헌신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 친밀감을 두려워하며, 가까운 사람과의 정서적 친밀감을 더 낮설어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부정적이고 닫힌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남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한다. 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주의나 형식적인 규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훨씬 깊고 풍성하게 만드시며 성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다.

우리의 성적 욕구는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근본적인 방향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특히 목회자나 상담자와 같이 특수한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성적쾌락의 배타성을 벗어나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그것은 곧 “권력”(power), “관계의 고립”(isolation), “고지식함 혹은 순진함”(naivete), 그리고 “슈퍼비전의 부재”(lack of supervision)라는 ‘완벽한’ 조합이다.⁶⁴⁾ 생산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적게 쉬고,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더 박약해질 때, 큰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이 성적 배타성의 경계선을 벗어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우선 목회자나 상담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바로 알고 깨어있”(65)어서 전문적 돌봄의 관계에 있어서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도와야 한다. 성적 탈선에 대한 자가 예방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성적 감정에 대한 신속하고 솔직한 성찰, 자기의식, 그리고 때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감정들에 대해 용기 있게 거절하는 것이다.⁶⁶⁾ 아울러 부부의 성적

64) 하재성, “목회자의 성적 위기와 극복을 위한 자원”, 기독교윤리연구소 목회자윤리 연속 심포지엄(목회자와 성), 2012. 10.5.

65) Rebecah Miles, *The Pastor as Moral Guide: Creat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Serie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9), 107-108.

66) 성적 욕구에 대한 자기의식을 위해, 하재성, “목회와 상담에서 나타나는 역전이 감정과 기독교적 영성”,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2008): 267-293을 참조하라.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비밀을 나누고,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상담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4) 자녀 양육의 모티브 vs. 동성애적 성향

인간 성의 본질에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포함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부부의 성적 교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Augustine과 Aquinas가 그것을 곡물선에 한 톨씩 쌓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을 지나면 배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밀알 같은 죄로 표현했지만, 실상 삶의 전 과정에 부부의 성적 교류는 거룩한 것이며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자녀의 생산과 무관한 동성애적 성욕과 성적 행동은 모든 맥락에서 죄이다.

2015년 6월, 미국 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가 가결된 이후, 한국의 동성애자들도 기독교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족제도에 대한 도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안을 제출하려 할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의 동성애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균형법 개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인권 대 반인권의 구도로 몰아가면서, 마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차별적인 사람으로 낙인찍으려 한다.

심지어 서구 기독교는 내부에서 이미 분열되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더 높이는 형국이다.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왜곡된 해석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신학자들로 말미암아 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교회의 특징은 “공황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지만 진리에 관한 한 끄적할 정도로 함량미달이다... 그렇게 완고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무시한다... 결국 그 교회는 회

중의 믿음에 맞추어 성경을 다시 쓰게 되는 꼴이다.”⁶⁷⁾

John Stott 는 마태복음 19장을 통해, “1. 이성애적 성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2. 이성애적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다. 그리고 3. 이성애적 정절은 하나님의 뜻 (혹은 의도, intention)이다”라고 주장한다.⁶⁸⁾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서 벗어난 모든 성적 관계 즉 일부다처, 간음, 수음, 혼음 등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강조한다. 어떤 성경을 통해서든 동성애는 전통적 기독교의 가치나 상담에서 죄 아닌 다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⁶⁹⁾

자녀양육의 가능성 자체가 배제된 성의 양식-불임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으로서의 동성애는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어느 맥락에서든지 항상 비도덕적이”⁷⁰⁾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자신의 성적 성향에 대한 만족만 계산되고, 자녀에 대한 돌봄이나 파트너에 대한 신실성은 배제되며,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자녀양육의 사명을 벗어나는 존재양식이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 성향과 욕망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과격한 형태의 저항을 불사한다. 단순히 이성애적 가정을 비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성적 양식을 ‘억압’ 하는 제도라고 여기고, 그것을 해체하려고 도전한다. 동성애자이자 작가인 호킹jem에 의하면 “동성애운동과 좀 더 전통적인 정치형식들 사이의 평화적 전망의 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⁷¹⁾ 아마도 동성애 혁명에 대해 호의적인

67) Mike Haley, *101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Homosexuality*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2004), 89.

68) John Stott, *Same Sex Partnerships?: A Christian Contribution to Contemporary Debat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8), 36.

69) 신원하, “동성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신학적 분석과 윤리적 성찰”, *고려신학대학원, 『개혁신학과 교회』* 제29호(2015): 123-154.

70) Greg L. Bahnsen, *Homosexuality: A Biblical View*, 최희영 역, 『성경이 가르치는 동성애』 (서울: 베다니, 2000), 83.

71) Guy Hocquenghem, *Le desir homosexuel*, 윤수중 역, 『동성애 욕망』(서울: 증원문화, 2013), 207.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는 “동성애자[들이] 혁명가들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사람들 사이에 낄 가능성이 크다”⁷²⁾고 말한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따른 결혼과 가정 구성의 창조명령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다. “성교는 인류가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생명이 시작되는 도구이다.”⁷³⁾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두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안전하고 사랑하는 환경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에 의한 결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 점진적으로 용납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용에 바치는 공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을 자녀생산으로부터 분리시킨 논리적인 결과이다.”⁷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인간의 성은 본질적으로 자녀생산과 연결되어 있다.

다만 동성애로 갈등하는 이들에 대한 기독교 상담자의 태도는 수용과 공감이어야 한다. 결혼생활과 동성애의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 내담자가 “위험한 도착자”라고 여겼던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상담자가 [자신을] 수용해 주었”기 때문이었다.⁷⁵⁾ 물론 한 번의 수용이나 공감, 한 번의 결심이 동성애적 성 정체성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같은 ‘고투자’들이 성적 열망보다 더 큰 대안적 열망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까지 기독교 상담자들과 교회는 인내의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 상담에 관한 한 상담자의 중립성은 무관심이 아니라면 사치스러운 것이다.

72) Huy P. Newton, “On the Just Struggle of Homosexuals and Women” (1970년 8월 5일); Hocquenghem, 『동성애 욕망』, 207에서 재인용.

73)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01.

74) Anthony Giddens, “The Global Revelation in Family and Personal Life,” in *Family in Transition*, 11th ed., eds. Arlene Skolnick & Jerome Skolnick (Boston: Allyn & Bacon, 2001), 19;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102에서 재인용.

75) David Powlison, *Seeing with New Eyes: Counseling and the Human Condition through the Lens of Scripture*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Co., 2003), 203.

5) 쾌락의 완성 vs. 권력화된 성

성적 쾌락의 완성은 곧 삶의 완성이다. “[이것은] 결혼의 극치 (consummation)이며 완성(completion)이다.⁷⁶⁾ 그러므로 성은 다른 어떤 삶이나 관계와는 구별된다. 성의 경험은 이전, 이후의 어떤 인간관계와도 구별되는 특별한 삶의 극치이다. 강렬한 일이 일어나고, 그 삶의 질적 차원이 달라질 때, 그것은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는 메타포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

하지만 권력화 된 성의 횡포는 피해자들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일으킨다. 권력은 상대를 굴복시키고, 굴복된 피해자는 저항도, 표현도 억압당하는 고통에 접어든다. 여기서 권력이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 뿐만 아니라, 연령, 경험, 물리적 힘, 지식의 우열에 따른 힘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성의 사용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것은 남성 상사에 의한 여성 부하직원의 추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성 교사에 의한 초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성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과는 동일하다. 위력에 의한 성의 도구화는 돌이키기 어려운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낳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여행하는 중 한적한 시골에서 갑작스런 기습을 받아 성폭행을 당하고 가까스로 구조된 미국 Dartmouth 대학교의 철학 교수 Susan J. Brison은 성폭력 피해자이자 생존자로서의 자신의 고통을 책으로 펴냈다.⁷⁷⁾ 그 사건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무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중시켰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성폭행의 트라우마를 “[그 후] 한 번이라도 고통이 멈춘 적이”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⁷⁸⁾ 가끔 운이 좋으면 한 시간 정도 그 기억에서 벗

76) Hollinger, *The Meaning of Sex*, 95.

77) Susan Brison, *Aftermath: Violence and the Remaking of a Self*, 고평 역,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서울: 인향, 2003).

78) Brison,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50.

어날 수 있었지만 우울한 날에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때로 성폭력을 비롯한 비슷한 트라우마 사건이 있을 때 피해자들은 “두려움, 통제력 상실, 파멸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겪으며, 이후에 따라오는 “극도의 불면증, 과도한 놀람 반응, 수면 장애와 같은 육체적인 반응”을 경험한다.⁷⁹⁾ 하지만 그 경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깊이를 간과한 채 오히려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를 탓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험 앞에서 “그것과 맞서 싸울 자세를 갖추게 하거나 아니면 도망치게끔 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적응반응은 성폭력이나 고문과 같은 트라우마 사건에 직면해서는 조금도 발휘되지 않는다.”⁸⁰⁾ 저항과 탈출이 불가능함을 느낄 때, 피해자의 방어체계는 일방적 힘에 압도되어 무너지고, 위험이 사라진 후에조차 변형된 고통이 남게 된다.

목회자나 상담자로부터 고통을 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향해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혹은 “왜 재빨리 도망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도덕을 넘어 영적으로 신뢰하던 지도자로부터 상상하지 못한 경계선 침범을 겪은 사람들의 놀람과 무기력은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칫 기독교 상담자나 목회자들이 “잘 하셨으면 피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혹은 “그런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라는 말은 “부주의한 말로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⁸¹⁾ 동시에 “마음을 굳게 다잡아서 기운을 내야만 하고 과거를 잊고 삶을 계속 해야 한다고 충고”하지만, 이 역시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⁸²⁾

79) Brison,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91.

80) Brison,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92.

81) Brison,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32.

82) Brison,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99.

하지만 트라우마의 회복에 있어서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비록 트라우마가 “듣는 사람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트라우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생존자는 자신의 마음 속에만 그리고 머릿속에만 담고 있던 그 때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외면화 해야만 한다.”⁸³⁾ 자신을 공감해주는 상담자에게 이야기할 때 비로소 생존자는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때까지 상담자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 상담자들이나 신앙인들이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 피해자들은 심리적 고립 속에서 자칫 하나님과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는 생존자의 고통에 집중적으로 공감하고 몰입함으로써, 적어도 생존자 스스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의미를 찾아 가는데 방해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III. 닫는 글

기독교상담에서의 성에 대한 담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은 창조로부터 인간 존재의 본질이며, 그 기능과 역할은 하나님의 창조명령 곧 인류번성과 자녀양육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중세기의 제한된 성의 관점을 넘어 성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결된 깊은 신비와 거룩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 목적과 경계선을 넘어선 것은 ‘죄’라는 말 외에 다른 것을 설명될 수 없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은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결혼 안에서의 성이 암시하는 거룩성을 관계적 본질로

83) Brison,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121, 126.

혹은 회복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성은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따라서 그 성의 역할과 바른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나 성은 타락하여 본질에서 벗어났고, 창조의 초기 역사부터 인간의 반역은 성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성은 부부관계를 벗어나 오직 쾌락과 지배력을 과시하려는 동성애나 권력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성의 변질에 관한 한 하나님은 순종 혹은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신다.

성에 관한 죄책감으로 인해 오랫동안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던 기독교 역사에서의 성이 자기 자리를 찾게 된 것은 500년 전 믿음과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려 했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였다. Luther는 종교개혁을 통해 철저하게 목양적으로 헌신했던 개혁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을 신학화하면서, 성을 통해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Calvin 역시 성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서 자연의 미덕과 즐거움을 동반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들은 성에 대한 유연하고 건강한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부부의 친밀감을 해치는 관계의 장애물들을 통찰하고, 성적 상호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울러 이 시대와 문화가 허용하는 성적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됨으로 부부가 성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우며, 동성애로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성을 매개로 트라우마를 겪은 생존자들을 위해 공감해줌으로써 이야기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로써 힘의 균형으로서의 정의가 상담을 통해서나마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신원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서울: IVP, 2012.
- 신원하. “동성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신학적 분석과 윤리적 성찰”. 고려신학대학원. 『개혁신학과 교회』 제29호 (2015).
- 하재성. “목회와 상담에서 나타나는 역전이 감정과 기독교적 영성”.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11권(2008).
- 하재성. “목회자 Calvin의 신학: 그 실천적 인간상”.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 53권 (2010).
- 하재성. “인간의 성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 하재성. “목회자의 성적 위기와 극복을 위한 자원.” 한국복음주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 (2013).
- 하재성. “목회상담 과연 가능한가?: 심리학의 사용에 대한 담론”. 『한국교회와 장신신학의 정체성』. 박상진 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출판부, 2016.
- St. Augustine. *On Free Choice of Will*. Trans. Anna S. Benjamin & L. H. Hackstaff.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4.
- Bahnsen, Greg L. *Homosexuality: A Biblical View*. 최희영 역. 『성경이 가르치는 동성애』. 서울: 베다니, 2000.
- Bailey, Derrick S.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London: Longmans, Green and Col, 1955.
- Barth, Hans-Martin.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정병식 · 홍지훈 역. 『마르틴 루터의 신학: 비평적 평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Bousma, William. *Calvin*. 이양호 · 박종숙 공역. 『칼빈』. 서울: 나단출판사, 1991.
- Brison, Susan. *Aftermath: Violence and the Remaking of a Self*. 고평 역.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서울: 인향, 2003.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 Capps, Donald. “Sex in the Parish: Social Scientific Explanations for Why It Occurs.” *Journal of Pastoral Care* 47. no. 4(1993).

- Dawn, Marva. *Sexual Character: Beyond Technique to Intimac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3.
- Giddens, Anthony. "The Global Revelation in Family and Personal Life." In *Family in Transition*. 11th ed. Eds. Arlene Skolnick & Jerome Skolnick. Boston: Allyn & Bacon. 2001.
- Haley, Mike. *101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Homosexuality*. Eugene, OR.: Harvest House Publishers. 2004.
- Heimbach, Daniel. *True Sexual Morality: Recovering Biblical Standards for a Culture in Crisis*. Wheaton, IL.: Crossway. 2004.
- Hocquenghem, Guy. *Le desir homosexuel*. 윤수중 역. 『동성애 욕망』. 서울: 중원문화. 2013.
- Hollinger, Dennis. *The Meaning of Sex: Christian Ethics and the Moral Lif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9.
- Hunter, Rodney.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91.
- Lambert, Heath.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Wheaton, IL.: Crossway. 2012.
- Laumann, Edward. et al.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Sexual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McMinn, Mark. *Sin and Grace in Christian Counseling*. 전요섭 · 박성은 역. 『죄와 은혜의 기독교 상담학』. 서울: CLC. 2011.
- Miles, Rebecah. *The Pastor as Moral Guide: Creat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Serie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9.
- Murray, John. *Principles of Conduct: Aspects of Biblical Ethics*. Grand Rapids, MI.: Eerdmans. 1964.
- Parker, T. H. L. *John Calvin: A Biograph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Peterson, Eugene. *Five Smooth Stones for Pastoral Work*. Grand Rapids, MI.: Eerdmans. 1992.
- Powlison, David. *Seeing with New Eyes: Counseling and the Human Condition through the Lens of Scripture*. Phillipsburg, NJ.: P & R Publishing Co. 2003.

- Schaumburg, Harry. *False Intimacy*. 윤종석 역. 『거짓된 친밀감』. 서울: 두란노, 2012.
- Smedes, Lewis. *Sex for Christians: The Limits and Liberties of Sexual Living*. rev. ed.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 Stott, John *Same Sex Partnerships?: A Christian Contribution to Contemporary Debat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8.
- Tertullian. *The Sacred Writings of Tertullian*. Volume 2. Trans. Peter Holmes & Sydney Thehval. North Charleston, SC.: Createspace, 2012.
- Bible Hub. "Online Bible Study Suite." In *Elicott's Commentary; Benson Commentary;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Pulpit Commentary; Keil and Delitzch Bible Commentary* etc. Accessed on August 28, 2017. Available at <http://biblehub.com/commentaries/genesis/2-24.htm>.
- Bible Hub. "Online Bible Study Suite." In *Pulpit Commentary*. Accessed on August 28, 2017. Available at <http://biblehub.com/commentaries/genesis/2-24.htm>.
- Bible Hub. "Online Bible Study Suite." In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1Cor.7:4. Accessed on August 28, 2017. Available at http://biblehub.com/commentaries/1_corinthians/7-4.htm.

【 Abstract 】

Christian Counseling and the Restoration of Human Sexuality: from Biblical and the Reformers' Perspectives

Jaesung Ha

Korea Theological Seminary (Kosin University)

Christian counseling requires the counselor's Biblical perspectives on human sexuality as prerequisite because the ultimate meanings of sexuality only come from both its Author and His Word. God made man and woman as sexual beings in His own image. According to the Scripture, human sexuality accompanies pleasure but it also necessitates a covenantal marriage relationship. However, there has been nothing like human sexuality that was distorted and destroyed from its original intention of the Creator both in Christian history and secular practices. Among them, homosexuality is a clear violation of God's creational intention even though it has been a widespread sexual practice among young people and a legal practice among today's biased elites. The Reformers such as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finally restored human sexuality back to its scriptural meanings and purposes: pleasure beyond childbearing, sexuality as a God's gift for human, and legitimacy of physical needs. Therefore, Christian counselors must help counselees see the human sexuality according to the Scripture and the teachings of the Reformers, that is, to seek sexual pleasure from or within their marital relationships, to share it mutually, to keep the sexual relationships exclusive, to help those with homosexual desires according to the Biblical truth, and to comfort those who have been through abysmal sexual violence by authorities or others.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sexuality, fall, pleasure, homosexuality